



## 26cm '눈폭탄'에 뿔뿔... 광주·전남 육해공 마비

광주공항 눈모자 쓴 항공기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가 이어진 24일 오전 한국공항공사 광주지사 직원들이 광주공항 활주도에 쌓인 눈을 치우기 위해 바빠 움직이고 있다. 이날에만 광주공항을 오가는 항공기 32편이 모두 결항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기록적인 폭설·한파 ... 빙판길 이틀간 교통사고 70여건 ... 오늘까지 눈, 내일 오후부터 풀릴 듯

광주·전남지역에 이틀째 이어진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로 광주는 최저기온이 1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 6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 내린 것으로 관측됐다. 흑산도의 최저기온은 기상관측 이래 가장 낮은 것으로 기록됐다. <관련기사 6면> 기상청은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울겨울 들어 첫 한파 주의보를 발령했으며, 대설 경보·주의보도 잇따라 발효했다. 빙판길로 변한 도로에서는 사고가 잇따랐고,

기상특보가 내려지면서 하늘길과 바닷길이 전면 차단됐다. 24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내린 눈은 무안(해제) 25.5cm를 최고로 광주 21.7cm, 장성 19.5cm, 목포 17.4cm, 영광 16.5cm, 함평 15cm, 진도·담양 14.5cm의 적설량을 보였다. 정읍에는 최고 37cm의 눈이 내린 것으로 관측됐으며, 광주는 21.7cm의 적설량을 기록하면서 지난 2011년 1월1일(23.7cm)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가 영하 11.7도, 해남 영하 9.8도, 목포 영하 9.1도, 완도 영하 8도 등으로 울겨울 들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흑산도는 영하 8.7도로 기상관측 이래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다. 특히 광주의 경우 2001년과 1990년에 이어 지난 30년 동안 역대 3번째로 낮은 기온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광주 도심

을 관통하는 광주천이 얼어붙기도 했다. 기상청은 지난 23일 오후 6시를 기해 여수 거문도와 초도를 제외한 광주·전남 전역에 울겨울 들어 첫 한파주의보를 발령했다. 또 무안·나주·진도·신안 등 전남 9개 시·군과 광주지역에 대설경보를, 장흥·강진·완도 등 전남 6개 군에 대설주의보를 내렸다. 남해서부 동쪽 만바다 등 서남해안에 풍랑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지면서 24일 목포·여수·완도 등을 오가는 55개 항로

92척의 배가 운항을 멈췄고, 어선 1만597척이 귀항·대피했다. 이날에만 광주공항을 오가는 항공편 32편이 모두 결항했다. 또 광주·전남지역에서 이틀간 70여건의 교통사고가 접수되는 등 빙판길로 인한 사고가 잇따랐다. 기상청은 25일까지 눈이 내린 뒤 26일 오후부터 점차 평년기온(아침 최저 영하 5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5~7도)을 되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25일까지 광주·전남지역의 예상 적설량은 2~10cm, 기온은 최저 영하 10도에서 최고 영상 1도 분포를 보일 전망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지역구 '+6'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여야, 선거구 원칙 합의

여야 원내지도부는 23~24일 이를 연속 국회에서 회동하고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과 관련, 현행대로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를 253석으로 현재보다 6석 늘리고 대신 비례대표를 47석으로 줄이기로 원칙 합의했다.

<관련기사 4면> 그러나 노동법 및 경제활성화법 선거구 획정과 연계해서는 새누리당 입장, 다른 법안 처리와 연계시키지 말고 합의된 선거구 획정 내용을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담아 처리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견해가 맞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여야는 이번 주에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여당이 공직선거법과 노동법 및 경제활성화법의 연계 처리를 고수할 경우 1월 임시국회 내 선거구 획정안 확정 가능성이 불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여야가 지역구수를 현재 246석에서 253석으로 늘리기로 결정함에 따라 구체적으로 선거구를 어떻게 조정·재획정할지를 놓고 여야 및 의원 개개인 이해관계가 엇갈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지역구를 253석으로 가져가는 것은 여야가 거의 의견을 모았다"며 "지금까지 야당이 주장한 내용은 20대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논의하는 것으로 이야기기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법을 같이 처리해야 선거구 획정만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거구획정은) '253석+47석' 안으로 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를 이뤘고 선거제도에 관한 것은 추가로 논의해서 다른 법률과 같이 처리하기로 원칙 합의했다"고 말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삼성 광주 가전라인 이전 후속대책 세워라"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일부 생산라인의 해외 이전 방침에 지역 협력업체들이 광주시에 애끓는 호소를 보냈다. 금융지원 확대, 지방세 감면 등 행·재정적 지원에서 지역 경제환경의 체질 개선 등 중장기적 대책까지 요구가 쏟아졌다. 광주시는 지난 22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금융권, 가전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가전협력업체 지원전략을 논의했다. 삼성전자 생산라인의 베트남 이전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에서 업체 관계

자들은 그동안의 애로사항과 함께 어두운 전망을 털어냈다. T사의 관계자는 "2010년 매출이 1100억원, 직원 220명 규모에 달하고 삼성전자 물량이 많아 설비에 투자를 많이 했다"며 "현재는 삼성전자 물량이 줄어들어 유휴 설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인력도 줄여야 할 형편이지만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매출 감소로 금융비용은 많이 늘었다"며 "시에서 중견기업 유지, 새로운 판로 개척 등 중기대책을 강

력히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S사 관계자는 신규사업 착수 소식을 전하며 "매출이 줄어 업종을 전환할 때 시에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밖에 업종 전환 시 컨설팅, 사업제안서 작성 등 실무적 지원책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들도 있었다. 광주시는 오는 29일에는 7개 은행의 지역 책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지역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돕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

### 잇단 해외이전 협력업체들 불안 광주시에 행정·재정적 지원 호소

다. 광주시와 삼성전자가 후속 방안을 논의하는 '데어블'도 곧 마려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그룹 고위 관계자는 지난 21일 운장현 광주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서병삼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장에 사측의 방안을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가전 제품 생산라인 이전에 대한 지역사회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남양고 생산라인을 베트남으로 보내기로 한데 앞서, 광주사업장의 세탁기 생산라인 2곳 중 1곳을 이미 폐쇄하고 해외로 이전하기로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세탁기 라인의 해외 이전은 가동 중이던 생산라인을 빼냈다는 점에서 냉장고 라인과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를 것으로 보여 지역경제에 더욱 큰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더욱이 삼성전자가 남양고 생산라인 해외 이전 사실이 외부에 알려졌을 때 "더 이상의 추가 이전은 없다"고 밝히는 등 세탁기 라인의 이전을 감춘 사실이 드러나 신뢰마저 무너진 상태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광주공장 관계자는 "설 안에 그룹 내 생활가전사업부장(부사장) 등 고위급을 면담하고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최원일·김대성기자 cki@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최고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The New C-Class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삼부대로 1041(화정동) | Tel. 062)226-0001

영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C 200 1,991cc, 1,905kg, 자동7단, 복합연비 12.1km/l (도시연비: 10.8km/l, 고속도로연비: 14.1km/l), 3등급, 복합CO<sub>2</sub> 배출량 144g/km \*C 200 Avantgarden 1,991cc, 1,905kg, 자동7단, 복합연비 12.1km/l (도시연비: 10.8km/l, 고속도로연비: 14.1km/l), 3등급, 복합CO<sub>2</sub> 배출량 144g/km \*C 220d Avantgarden 2,143cc, 1,625kg, 자동7단, 복합연비 17.4km/l (도시연비: 15.1km/l, 고속도로연비: 21.3km/l), 1등급, 복합CO<sub>2</sub> 배출량 111g/km \*C 220d Exclusive 2,143cc, 1,625kg, 자동7단, 복합연비 17.4km/l (도시연비: 15.1km/l, 고속도로연비: 21.3km/l), 1등급, 복합CO<sub>2</sub> 배출량 111g/km \*C 250d 4MATIC 2,143cc, 1,730kg, 자동7단, 복합연비 15.5km/l (도시연비: 13.7km/l, 고속도로연비: 18.4km/l), 2등급, 복합CO<sub>2</sub> 배출량 126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제 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